

##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

김창현(국토연구원 연구위원)

- 2010년부터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비수도권 및 농촌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분산이 나타나고 농촌활성화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되고 있음
  - 2005~2010년 사이에 전체 베이비붐 세대 인구 중 수도권과 도시(洞)지역의 인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, 농촌(邑·面)지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약 2만 3천 명 증가함
  -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전이되기 시작하는 202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본격적인 감소와 고령인구 비율의 급격한 상승이 전망됨
-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약 2/3 정도가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고, 향후 10년 동안 농촌으로의 이주가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조사됨
  -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66.3%가 은퇴 후에는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으며, 13.9%는 이미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농촌이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, 비수도권의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
  - 노후의 전원·휴양·여가 활동을 위한 농촌이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

### | 정 | 책 | 적 | 시 | 사 | 점 |

- 1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전원 지향 성향을 농촌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 비수도권 및 농촌으로의 인구분산과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
- 2 농촌활성화의 새로운 거점으로, 전원주거-경제활동-의료복지-활력증진 등 다기능 복합형의 농촌정주거점을 조성·육성하는 전략을 추진
- 3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·지자체·민간이 연계·협력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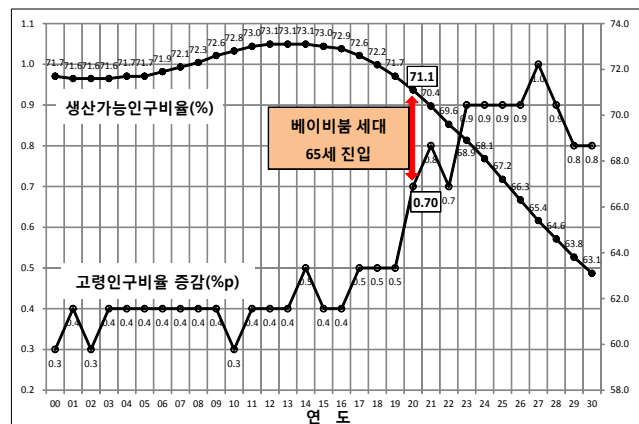
※ 본 국토정책Brief는 국토연구원에서 2011년 발간한 김창현 외, “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활성화 전략 연구”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, 정리한 것임.

# 1.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동향

■ 2010년부터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에 진입하였으며, 향후 이들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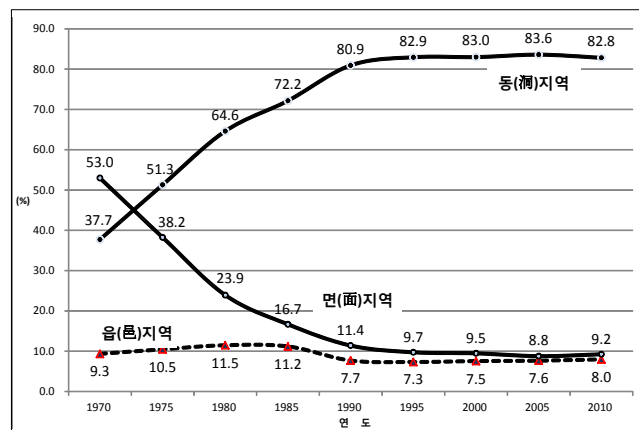
-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의 9년 동안 출생한 인구로 2010년 현재 695만 명에 하며, 전체인구(내국인)의 1.5%를 차지
- 베이비붐 세대 중 1955년도에 출생한 인구가 2010년도에 만 55세에 함으로 본격적인 은퇴시기에 도래
- 2020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고령인구비율의 증가 이 2020년 0.%, 2025년 0.9% 등으로 급격 상승할 것으로 상
-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 1.1%, 2030년에는 63.1%로 감소하는 등 하 세 가 화가 상

[그림 1]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의 장래추이



자료: 통계청, 장래인구추계, 국가통계포털.

[그림 2] 베이비붐 세대의 도농 간 분포 변화



자료: 통계청, 인구총조사, 국가통계포털.

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어들면서 비수도권과 읍·면의 농촌으로 분산하는 경향이 나타남

- 2010년 현재 베이비붐 세대 695만 명 중, 도시(洞)에 전체의 2. %인 56만 명, 농촌지역(읍·面)에는 1.2%인 119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
-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도시지역 거주자의 비중은 0. % 감소한 반면, 읍·면지역의 경우는 비중이 0. % 대
- 2010년 현재 수도권에는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.5%가 거주하고 있으나, 근 수도권의 비중은 0.3% 감소한 반면 인 한 청권과 원권의 비중은 0.3% 와 0.1% 증가

## 2. 베이비붐 세대의 이도향촌(離都向村) 성향

### ●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이주 의향과 목적

-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2/3 정도가 은퇴 후 농촌이주 의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됨
  - 자의 13.9%는 농촌이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음

【그림 3】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의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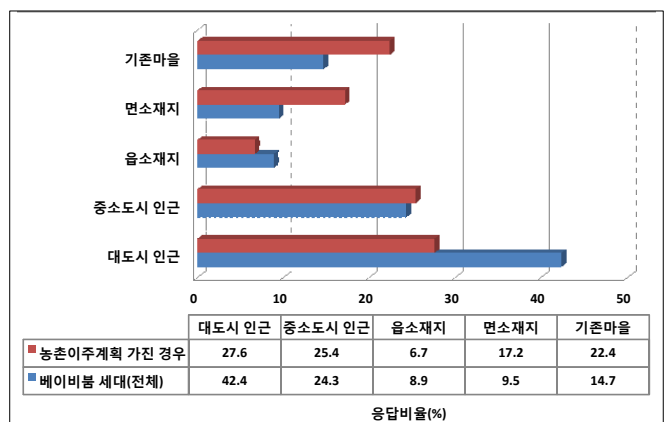


- 구체적으로 농촌이주 계획을 가진 경우 5. %가 향후 10년 이내에 농촌이주를 망
  - 자의 1. %가 5년 이내, 리고 .0%가 5년에서 10년 이내에 농촌으로 이주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
- 농촌으로 이주하 는 적 중 “본인 및 우자의 노후 전원·휴양·여가 활동 위를 위해서”가 69.1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
  - 이에 이어 “농어촌 동체 사 조 에의 여를 통한 일자리 구 과 지역사회 을 위해서”가 15.6%를 차지
  - 농촌이주 계획을 가진 경우, 농 수산 생산·가 · (11.2%), 음 점 · . 체 농원 경 ( .2%)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

### ●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공간 선호구조

-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는 대도시 인근의 농촌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
  - 비수도권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 (2 .5%)을 선호
- 농촌이주 계획을 가진 경우 비수도권의 농촌마을(20.9%), 면소재지(1 .2%), 중소도시 인근 농촌(16. %)을 선호

【그림 4】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이주희망 농촌지역의 입지



【표 1】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이주희망 농촌지역 분포

| 구 분 | 이주 희망 농촌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   | 경기( 3.6%), 원(1 .6%), 전남( .2%), 경남(6.3%) |
| 부 산 | 경남(55.0%), 경 (6. %) 경기(5.0%)            |
| 대 구 | 경 ( 0.5%), 경남(6.3%)                     |
| 주   | 전남( 9.5%), 전 ( .5%)                     |
| 대 전 | 남( 1.5%), (15.1%), 경기(5. %), 전남(5. %)   |

## ● 베이비붐 세대의 정책 수요

- 도시민의 농촌 이주·정 을 진하기 위해서는 의료·복지를 중 으로 한 생활 경 선( 5.9%)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됨
  - 다음으로 소 창출이나 지역사회 등 일자리 마련(21.6%)이 중요
  - 농촌이주 계획을 가진 계 이나 50대 후반에서는 부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 활여 과 자 세대의 체 ·여가· 경 조성도 중요
  - 이외에 농촌정 에 필요한 자 지원과 농촌정 및 농 정보·기 을 하 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
- 주거에서는 전원마을 등 주거단지를 가장 선호하는 가운 장 등 주 과 기 마을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
  - 전원마을 등 주거단지( 0.6%), 장 등 · 적 주 (30.2%), 기 마을의 주 (29.1%) 으로 주거입지를 선호

## 3.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응한 농촌활성화 전략

### ● 전원 주거공간의 조성

-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적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‘전원·휴 양·여가활동’ 수요에 대 하는 주거 간 조성이 필요
  - 농촌의 적한 자연 경 등을 활용하여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 를 진
- 전원마을, 농어촌 타운, 소 주거단지 조성, 주 등 전원 주거 간 조 성과 련 기 의 정책수단들을 과적으로 활용

- 지자체의 성장과 베이비붐 세대의 도시민 입주수요 등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계로 주거단지를 조성

## ● 경제활력 창출기회의 마련

- 대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‘농 등 일 자리 획 등을 통한 경제적 활동’ 기회를 창출
  - 농 수산 의 생산·가 , 사회적 기 을 비 한 지역 동체 사 조 등을 통한 재능 제 과 활기차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
- 농수산 의 생산·가 , 로 의 육 및 , 사회적 기 등 에의 여와 련 기 정책수단들을 과적으로 활용
- 농촌 지자체의 장소적·경제적 성을 반 하여 농 수산 , 상 , 서비 등 산 분 지원비중을 력적으로 조정

## 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의료·복지환경 조성

-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 으로 지적한 ‘의료·복지를 중 으로 한 농촌 생활 경의 선’을 적 추진
- 요양 원·요양시 , 의료·복지시 등과 련한 기 의 정책수단들을 과적으로 활용
  - 적 수 제고와 과 대를 위해서는 정 거점 간을 중 으로 연계·통합 하여 리·운 하는 것이 과적임
- 도시민 만 라 현지 주민들의 진과 리, 진료· 료 등 의료거점으로 기능과 역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

## ● 활력증진공간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
- 농촌전원 에 거주하면서 휴양·여가활동을 통해 활력을 증진해가는 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장수 로 을 운

- 화·체육 및 ·복지 생활 향 와 련 기 의 정책수단들을 과적으로 활용
  - 휴양·여가 및 화·체육시 등 활력증진 간 조성, 리 및 회복 로
  - , ·사회활동, 생산적 여가활동 등 ·복지 생활 로 의 발과 운
- 소 부 사 들을 연계·통합하여 운용 과를 제고
  - 화·체육시 ( 화체육 부), 장수마을(농 수산 부), 요양·보 ·의료 (보 복지부) 련 사 들을 연계·통합하여 운용

## 4. 정책적 시사점

- 전원주거-경제활동-의료복지-활력증진 등의 다기능 복합단지 은 농촌 생활권 단위 형 의 새로운 농촌활성화 거점을 조성
- “전원휴양·의료복지·활력증진 복합형 농촌 정주거점”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·지자체·민간 간에 상호 기능과 역할을 분담
  - 중앙정부는 정부 차원의 계획이나 지 등을 통해 기 련 사 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·민간의 운용을
  - 지자체는 지역 성과 수요 여 에 의거하여 지역 화형 정주거점 발을 위한 천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 을 추진
  - 민간은 사회적 기 등 동체 조 을 통하여 소 한 면의 운 과 리를 음
- 추가적 자원 보나 산 성 부담을 소화하면서 추진
  - 전원 주거 간 조성, 농·촌 련 대책, , 장수, 의료복지 등과 련 기 의 다양한 사 및 정책들의 연계·통합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을성 제고
- 조사 과 일정수 수요 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(대)도시 인근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시 사 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산하는 단계적 추진을 토

●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김창현 연구위원 (chyunkim@krihs.re.kr, 031-380-0155)